

경북도서관, 도내 시·군립 공공도서관장 정례 회의 개최

안상수 기자 gsm333@hanmail.net 입력 | 수정 2025.09.09 19:51

[경상매일신문=안상수기자]경북도서관은 9일 경북도서관 회의실에서 시·군립 공공도서관장 등 관계자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도내 공공도서관의 질적 성장을 위한 '시·군립 공공도서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시·군립 공공도서관장 회의는 경북의 광역 대표 도서관인 경북도서관이 도내 공공도서관의 현안·건의 사항을 논의하고, 정책 개선 방향 수렴을

이를 통해 시·군립 공공도서관과의 소통강화와 급속히 변화하는 디지털 사회에 유연히 대응하고, 공동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등 공통적인 현안

이날 회의에서 경북도서관은 △2026년 공공도서관 운영평가 지표 설명 △2026년 정부합동평가 작성 안내 △도서관법 전부 개정에 따른 공공도서관 관련 각종 현안 안내 △초보 엄마아빠 북돋움 책 선물 사업 참여 홍보 △2025 경BOOK 페스티벌 행사 개최 시 시군 도서관 홍보부스 운영 등에 대해 설명, 안내하고 시군 협력 과제에 대한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박세진 경북도서관장은 "최근 도서관은 책도 읽고 휴식도 취하는 지식 창고이자 지역의 문화 커뮤니티 공간으로, 문화와 복지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이 함께 정책적 협력과 지원을 통해 도내 도서관의 발전과 도민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